

제1교시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공 란

[1~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청 측:** 지금부터 2017년 야구장 임대료 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야구장 임대료를 작년과 같이 입장료 수입의 15%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의 야구장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 측:** 작년부터 저희 팀 홈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 수가 30%P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은 야구장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0%로 정했으면 합니다. 관중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로 낮춘다고 해도 시의 야구장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구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 측:** 2017년 시즌에 관중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야구장 임대료를 10%로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야구장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2%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구단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넘겨 드렸던 야구장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을 이제는 우리 시에 돌려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단 측:** 임대료를 12%까지 내려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야구장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작년부터 관중 수가 늘었다고 해도 선수들 연봉 인상을 비롯해 구단 운영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이 없으면 저희 구단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상황입니다.

**시청 측:** 구단의 사정이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넘겼던 권리를 이제는 구단 사정이 많이 나아졌으니 원래대로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2%까지 낮춰 주는데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15%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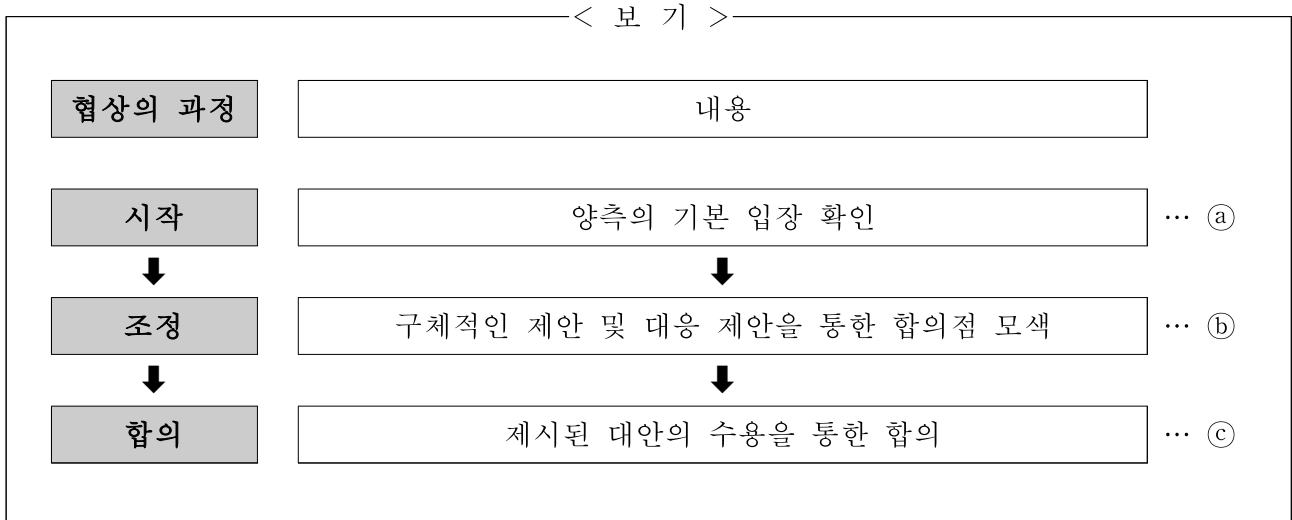
**구단 측:** 시에서 그동안 배려해 주신 점은 저희 구단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이 늘어나면서 야구장의 광고 수입과 매점 운영 수입이 많아진 것은 엄연히 저희 구단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온 노력의 대가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광고권은 시에서 가져가시되 매점 운영권은 계속 저희가 가졌으면 합니다. 매점은 저희 구단의 홈경기가 있는 날에만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 수익은 저희 구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점 운영권을 유지하는 대신 저희 구단도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시청 측:**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입장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홈런 개수당 일정 금액을 우리 시에 기부하여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구단 측:**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의 복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구단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점 운영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그 정도 제안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시청 측:** 좋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야구장 임대료 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lt;보기&gt;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구단 측은 관중 수의 증가를 근거로 야구장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 ② ㉡: 시청 측은 구단 측이 처음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을 수용하면서 대응 제안을 제시했다.
- ③ ㉢: 구단 측은 그동안 해 온 노력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시청 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 제안을 제시했다.
- ④ ㉢: 시청 측은 구단 측이 원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구단 측의 협력 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⑤ ㉢: 구단 측은 시청 측이 제시한 복지 정책과 관련된 협력 방안의 효과를 언급하며 시청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 2. [가]에 나타난 협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측 주장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상대 측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 ② 상대 측의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 측의 양보를 겸손하게 제안하고 있다.
- ③ 상대 측 주장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 ⑤ 상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상대 측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 3. ㉠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구장 임대료는 입장료 수입의 12%로 한다.
- ② 광고권은 시가, 매점 운영권은 구단이 갖는다.
- ③ 구단은 홈런 개수당 일정한 금액을 시에 기부한다.
- ④ 시는 구단의 매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⑤ 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야구장 무료입장 행사를 개최한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몇 년 전에 상영된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적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드물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역시 보신 분들이 많군요. 조선의 사신이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옥새를 잃어버리자 여러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게 이 영화의 설정이었죠.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애쓰며 찾으려 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옥새’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전에 제가 나눠 드린 활동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관련 사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발표 내용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도장으로서 옥으로 제작한 것을 옥새, 금으로 제작한 것을 금보 혹은 금인이라 하였습니다. 진시황 때 옥으로 황제의 권위를 보여 주는 도장을 새긴 것이 옥새의 시작이었는데, 이후 금으로 만든 금보도 그냥 옥새로 통칭해서 불렸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자, 이것은 국립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왕의 옥새인데요, 손잡이 부분이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 주며) 옥새에 새겨진 이와 같은 문자를 ‘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옥새에 새겨진 글자를 한번 읽어 볼까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네. 한자인데다 글자체가 독특해서 읽기 어려우시죠? 이것은 바로 ‘조선국왕지인’이라고 새긴 겁니다.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에게 옥새를 가져다 바치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옥새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옥새를 왕위 계승의 징표로 삼았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옥새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옥새를 찍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옥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궁 박물관 학예 연구사의 설명에 의하면, 주로 대 중국 관계의 외교문서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국인’ 또는 ‘대보’를 사용했고, 왕명으로 작성되는 국내 문서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도 옥새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왕은 없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도장을 찍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옥새 대신 ‘대한민국지새’라는 한자 인문을 새긴 ‘국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번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새 인문을 한글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지금 보시는 이 국새가 2011년에 새롭게 제작한 현행 대한민국 국새입니다. 자, 손잡이 부분이 아까 보신 옥새와 달리 상서로운 새, 봉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 국새는 주로 헌법 공포문, 외교사절 임명장, 중요 외교문서 등에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옥새에 대해 많이 아시게 되셨죠?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 ②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야겠어.
- ③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④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⑤ 중심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여 청중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5. 다음은 발표를 들으면서 활동지에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옥새>

- 진시황 때부터 옥으로 만든 옥새 사용 ..... ㉠
- 황제의 권위 상징, 왕위를 계승했다는 상징적 의미 ..... ㉡
- 여러 개의 옥새 사용
  - 대 중국 관계 외교문서 : 국인, 대보 사용 ..... ㉢
  - 국내 문서 : 중국 황제에게 받은 어보 사용 ..... ㉣



<국새>

- 국새 손잡이는 봉황 모양
  - 봉황 : 상서로운 새
- 국새 사용
  - 헌법 공포문, 외교사절 임명장, 중요 외교문서 등 .....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다음 주말에는 인터넷 등산 카페 ‘산에서 사노라네’ 회원들과 함께 설악산 등산을하기로 했다. 나는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이번 등산 계획에 대해 알리는 한편,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이 좋아 산을 지키고 있는 회장 ○○○입니다. 지난 11차 ‘소백산’ 등산에는 서른여섯 분의 회원이 참가하셔서 소백산 삼가 탐방지원센터에서 어의곡에 이르는 왕복 약 10km의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 돌아가 복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해 드릴 사항은 다음 주말에 실시할 12차 산행을 설악산 등산로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진에서 설악산으로 산행을 정한 이유는 카페에서 실시한 산행지 온라인 투표에서 설악산이 압도적으로 1위를 ㉡ 차지했습니다. 또 여러 회원님들이 운영진에 난이도가 높은 산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셨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번 산행은 설악산 오색 분소에서 대청 분소까지를 왕복하는 것으로, 편도 약 5km를 4시간에 가야 하는 좀 힘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청 분소까지 다녀오실 ‘산에서’ 팀과, 대청 분소에 가지 않고 권금성을 케이블카로 다녀오는 ‘사노라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사노라네’ 팀에는, 권금성을 다녀오신 후 설악산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이시기도 한 △△△ 회원께서 특별히 패러글라이딩 연수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 ‘사노라네’ 팀으로 가버리시면 정말 ㉢ 힘난합니다. ^^



등급명	국문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영문	Easy	Moderate	Intermediate	Advanced	Expert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임신부 등</li> <li>바퀴 달린 보행 수단 (휠체어, 유모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고령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산 경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산 숙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산 전문가</li> </ul>
픽토그램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

회원 여러분을 위해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국 약 1,700km의 등산로에 대해 경사도와 폭, 거리, 노면 상태 등을 조사해 등산로별 난이도로 등급을 매긴 제도입니다. 등급별 코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매우 쉬움’ 코스는 노면이 평탄하고 폭도 넓고 경사가 완만한 구간, ‘쉬움’ 코스는 평탄한 흙길 위주의 등산로입니다. 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무리한 등산으로 발생하는 심장 돌연사, 골절,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코스는 가벼운 등산을 위한 코스, ‘어려움’ 코스는 심한 경사와 돌로 이루어진 4~7시간의 중거리 코스, ‘매우 어려움’ 코스는 아주 심한 경사와 대부분 돌로 이루어진 장거리 코스이니, 등산하실 때 꼭 참고하십시오.

제가 회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산행에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대청 분소 코스에는 경사도 심하고, 돌길이 많은 ‘매우 어려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산행을 위해 체력 훈련을 많이 하시고, 등산 장비도 꼼꼼히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비가 살짝 올 것으로 예상되니, 우비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등산을 잘 한다고 자신하는 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안전한 산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태양 빛은 더없이 강렬해지고 뜨거운 바람은 우리의 눈과 귀를 훌훌 붉아댑니다. ㉕ 그러면 설악산에서 멋진 땀방울을 흘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대청 분소에 올라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구호!! 항상 “즐산!”입니다. 이번 산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님을 통해 추후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쓰기 전에 글쓴이가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회원들에게 지난 산행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며 글을 시작해야지.
- ② 등산 계획을 안내할 때는 그 산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언급해야지.
- ③ 등산 코스를 안내할 때는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회원들의 이해를 도와야지.
- ④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는 등급 코스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해야지.
- ⑤ 안전 산행을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때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야지.

7. ㉑~㉕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삭제한다.
- ② ㉒: 주어와의 호응이 잘못되었으므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로 바꾼다.
- ③ ㉓: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므로 ‘난해’로 바꾼다.
- ④ ㉔: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⑤ ㉕: 접속어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그렇지만’으로 바꾼다.

8. 카페에 올린 [초고]를 보고 회원들이 쓴 댓글 중, [초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이디(ID)	내 용
야호 야호	요즘 제가 감기에 걸려서 대청 분소 산행이 무리일 것 같아요. 저는 ‘사노라네’ 팀에 합류해서 한 마리 멋진 새가 되어 볼게요. ㅋㅋ .....㉠
한라산 좋아	이번 등산 코스는 꽤 힘들겠네요.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산행지를 결정할 때 꼭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 그리고 한라산에 한번 오세요. 제가 모든 회원님들께 승마 가르쳐 드릴게요. ....㉡
등산 마녀	오색 분소에서 대청 분소까지는 ‘쉬움’ 코스에서 ‘어려움’ 코스, ‘매우 어려움’ 코스로 진행되겠네요. 회장님 말씀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
초롱 초롱이	회장님께서 그날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하셨으니, 산길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 꼭 신고 가야겠네요.^^ .....㉣
나는 엄홍길	회원들이 만날 장소나 출발 시간, 일정, 회비 등에 대해 알려면 총무님이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는 글을 꼭 열어 봐야겠네요. 회원님들 다음 주말에 반갑게 만나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보기 1 > —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설문 쓰기
- 작문 소재: 대기오염과 친환경 자동차
- 작문 논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활용 자료]

(가) 도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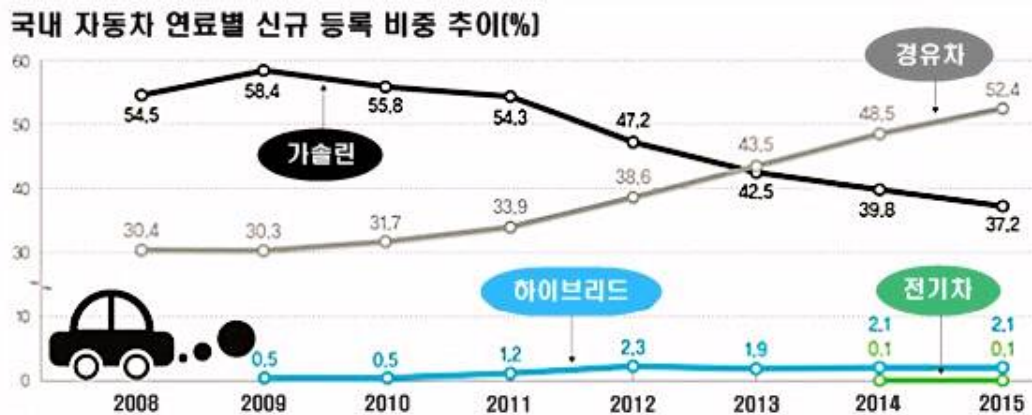
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연료	화석연료+전기	전기	수소
대당 온실가스 감축 효과(년)	0.7톤	2톤	2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연비</li> <li>● 대기오염 물질 약 40% 감소</li> <li>● 화석연료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없음</li> <li>● 비싼 가격</li> <li>● 충전소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없음</li> <li>● 비싼 가격</li> <li>● 충전소 부족</li> </ul>

## (나) 보도 자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 5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2.6배,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은 8.5배 성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

## (다) 통계 자료



## (라) 인터뷰 자료

나 하나 탄다고 환경이 개선되겠어요? 그리고 사고 싶어도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 자동차에 비해 많이 비싸잖아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혜택이 적어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전기 충전소나 정비 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불편할 것 같아요.

## &lt; 보기 2 &gt;

- 서론
- 본론
  1.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특징 .....㉠
  2.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필요성
    - 가. 환경 개선 효과 .....㉡
    - 나. 자동차 산업 활성화 효과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실태와 문제점 .....㉢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 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 나.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 다. 소비자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 전환 .....㉤
- 결론

## 9. &lt;보기 1&gt;을 활용하여 &lt;보기 2&gt;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장단점을 제시한다.
- ② ㉡에서는 (가), (나)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한다.
- ③ ㉢에서는 (다), (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비싼 가격, 구매 지원 제도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미흡 등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저조한 이유임을 설명한다.
- ④ ㉣에서는 (나), (다)를 활용하여,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여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⑤ ㉤에서는 (나), (다), (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가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10. &lt;보기 2&gt;의 서론을 &lt;조건&gt;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t; 조 건 &gt;

- <보기 1>의 작문 논지를 반영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대기오염 물질의 1차적 주범, 일반 자동차 판매량은 왜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 대기오염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명암을 살펴보자.
- ② 어느덧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10년 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
- ③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우리의 하늘이 검게 물들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 비율은 왜 2% 내외에 불과할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④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우리의 대기를 정화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신 성장 산업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5년 내에 2.6배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전망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 ⑤ 미래 사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친환경 자동차 산업. 하지만 아직도 일반 자동차가 98% 내외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1. <보기>는 접두사의 쓰임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 ㉡에 들어갈 접두사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탐구 과제>

수집한 단어 분석을 통해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의 쓰임을 탐구한다.

<수집한 단어>

새까맣다   새파랗다   셋노랑다   시꺼멓다   시퍼렇다   싹누렇다

<탐구 결과>

결합되는 어간의 첫 음절	초성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중성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접두사			㉠	㉡	

- |      |    |      |    |
|------|----|------|----|
| ㉠    | ㉡  | ㉠    | ㉡  |
| ① 시- | 셋- | ② 시- | 싹- |
| ③ 새- | 시- | ④ 새- | 셋- |
| ⑤ 셋- | 싹- |      |    |

12.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자, 이번에는 보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의 용례 위에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 글상자는 보조사가 용례의 [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글상자는 왼쪽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보조사가 결합되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ㄱ의 예시를 보고 ㄴ의 빈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p>크려, 는, 도, 만, 요</p> <p>ㄱ. 철수[ ] 영화를 본다.</p>	⇒	<p>보조사 중에는 체언 뒤에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p>
<p>크려, 는, 도, 만, 요</p> <p>ㄴ. 철수가 멋있어[ ] 보이네.</p>	⇒	

- ① 보조사 중에는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② 보조사 중에는 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③ 보조사 중에는 연결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④ 보조사 중에는 종결 어미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⑤ 보조사 중에는 보조 형용사 뒤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ㄱ, 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1 >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하고, 안긴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안은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것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 보기 2 > —

ㄱ. 그는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ㄴ.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삼계탕이 그야말로 보양식이다.

- ①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를 꾸미고 있군.
- ②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를 꾸미고 있군.
- ③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군.
- ④ ㄱ의 안긴문장에는 ㄴ의 안긴문장에서와 달리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군.
- ⑤ ㄱ의 안긴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ㄴ의 안긴문장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14.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7항은 구개음화에 대한 발음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조사나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의 일부이거나 실질 형태소의 일부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ㄱ.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 말이는 윷머리와 뒷머리 술을 많이 쳤다.  
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던 그는 흙에 묻힌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ㄷ. 그는 밭이랑 논이랑 땅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 ① ㄱ의 ‘말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겠군.
- ② ㄱ의 ‘술’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수출]로 발음해야겠군.
- ③ ㄴ의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겠군.
- ④ ㄴ의 ‘묻힌’은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무친]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ㄷ의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겠군.

15.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중세 국어 자료]

:시내 횃:돈 · 더 · 숲 브락·미 기·리 :부느·니 프·른 · 쥐 :넛 디셋 ·서리·예 ·숨느·다  
:아디 :물흐·리로·다 어·느 :넙궘 宮殿(궁전)·고 기·튼 지·슨 거·시 노·폰 石壁(석벽)ㅅ 아·래  
로·다  
·어득흔 房(방)·엔 꺾거·식 ·브리 꺾·락·고 물·어딘 길·헨 슬픈 ·프리 흐르·눛·다  
여·러 가·짓 소·리 眞實(진실)ㅅ 더·와 ·피릿 소·리 ·곧·도소·니 ㅁ·숄 ·비치 正(정)·히  
꺾꺾·흐도·다

- 두보, 「옥화궁(玉華宮)」 『초간본 두시언해』 (1481년) -

(나) [현대 국어 자료]

시내 휘도는 데 술 바람이 길이 부나니 푸른 쥐 옛 기와 사이에 숨는다.  
알지 못하리로다, 어느 임금의 궁전인가? 남은 지은 것이 높은 석벽의 아래로다.  
어두한 방에는 귀신의 불이 파랑고 무너진 길에는 슬픈 물이 흐르는구나.  
여러 가지 소리 진실로 저와 피리의 소리 같더니 가을 빛이 정히 깨끗하도다.

- ① (나)의 ‘옛’을 고려할 때, (가)의 ‘넛’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 ② (나)의 ‘임금의’를 고려할 때, (가)의 ‘넙궘’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 ③ (나)의 ‘불이’를 고려할 때, (가)의 ‘브리’에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났군.
- ④ (나)의 ‘-는구나’를 고려할 때, (가)의 ‘-눛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군.
- ⑤ (나)의 ‘빛이’를 고려할 때, (가)의 ‘비치’는 이어적기 표기를 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특정한 국가에서 순수하게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국가의 언어 상황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한 개인이나 사회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다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 사용’과 ‘양층 언어 사용’의 두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중 언어 사용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일상생활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둘 이상의 언어들은 사회적으로 기능상의 차이 없이 통용된다. 이중 언어 사용은 개인적 이중 언어 사용과 사회적 이중 언어 사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이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공동체 내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중 언어 사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될 필요는 없다. 대다수 구성원들이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의 언어만 알고 있어도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염려는 없다.

이중 언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둘 이상의 언어들은 공용어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대체로 구성원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수자 언어’가 되고, 상대적으로 사용 인원이 적은 언어는 ‘소수자 언어’가 된다. 일반적으로 다수자 언어는 힘이나 권위의 문제에 있어 소수자 언어보다 우세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소수자 언어는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작다는 이유로 정치,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양층 언어 사용은 언어학자 피거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양층 언어 사용은 언어적 유사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방언 수준 이상으로 음운, 문법, 어휘 등의 층위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개 이상의 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이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 사용하는 장소나 상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쓰인다. 양층 언어 사회에서 변이어들은 언어 사용자 수와 무관하게 ‘상층어’와 ‘하층어’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상층어는 주로 종교, 법률, 교육, 행정 등과 같은 ‘높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식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반면 하층어는 가족 간의 비격식적인 대화, 친교를 위한 일상 담화 등 ‘낮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가정에서 모어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 양층 언어 사용 상황에 있는 구성원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상층어를 모른다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투표와 같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거슨과 달리 피시먼은 그의 연구에서, 언어적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두 언어가 각자의 기능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수행하는 상황까지를 포함하여 양층 언어 사용을 설명하였다. 피시먼의 연구 결과 [A] 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라과이의 언어 사용 상황을 들 수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스페인어가 상층어로서 각종 행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스페인어와 언어적 유사성이 없는 토착어인 파라니어는 인구의 90%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층어로 사용되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대조의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인과의 방법으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을 하위 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사용되는 변이어들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
- ②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특정 변이어를 모르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③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 변이어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
- ④ 이중 언어 사회에서는 소수자 언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 ⑤ 이중 언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자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

## 18. 밑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A 지역에서는 현대 표준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는 현대 표준 아랍어가 구어체 아랍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현대 표준 아랍어를 사용해야 하는 종교 시설에서 구어체 아랍어를 사용하면 비난을 받게 된다.
- B 지역에서는 프랑스 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이 두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프랑스 어와 영어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Bonjour(봉주르), Hello(헬로)!’와 같이 인사를 건넨다.

- ① A 지역에서는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겠군.
- ② B 지역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두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겠군.
- ③ A 지역에서는 B 지역에서와 달리 두 개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겠군.
- ④ B 지역에서는 A 지역에서와 달리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의 구분이 없겠군.
- ⑤ A 지역과 B 지역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언어적 다양성이 나타나겠군.

## 19. [A]에 나타난 ‘피시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층어와 하층어는 서로 다른 언어적 체계와 규범을 지닌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 ② 상층어와 하층어를 구분하는 기준을 사용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설정하였다.
- ③ 이중 언어 사용과 양층 언어 사용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언어학의 외연을 넓혔다.
- ④ 언어적 유사성에 국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차별적 사용 여부에 주목하여 양층 언어 사용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⑤ 언어에 대한 연구 관점을 본질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층 언어 사용의 연구 분야를 체계화하였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복지 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 보장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조직적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 복지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몇 가지 모델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월렌스키와 르보가 제안한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 잔여적 복지 모델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적 기능이 일차적으로 사적 영역인 가족이나 시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 복지 제도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 복지 모델은 구호적 성격의 사회 복지 모델이다. 잔여적 복지 모델은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 수준으로 ㉢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회 복지의 대상도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기능을 보장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공공 부조와 같이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회 복지 서비스는 소득 조사나 자산 조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제공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가족, 공동체, 민간 자원봉사, 시장 등 민간 부문이 개인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제도적 복지 모델은 각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기 성취를 돕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 제도를 통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상적 위험과 불안에 충분히 ㉤ 대처하기 어려우며, 가족이나 직장도 개인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복지 모델은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성별, 나이, 지위, 계층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생존의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탈상품화는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도적 복지 모델에서는 국가가 사회 복지를 시장 논리에 내맡기지 않고 개인 또는 가족, 민간 부문에 그 책임을 ㉥ 전가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모델 중 하나만을 택하여 모든 복지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복지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를 ㉦ 구현할 때는 운영 방식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한다. 전자는 국민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 중 일부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국가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생계 급여 제도는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지 모델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② 복지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복지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 ③ 공공 부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 ④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반드시 자산 조사 과정을 거친다.
- ⑤ 우리나라의 생계 급여 제도는 잔여적 복지 모델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21. <보기>의 상황에 대해 ㉠, ㉡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민간 자선단체가 주로 빈민 구호 역할을 맡고 있는 A 국가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빈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국가의 의료 복지 제도가 미비하여 빈민들이 개인 비용으로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 국가에서는 빈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국가가 빈민 구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를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합니다.
- ② ㉠: 개인의 욕구 충족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현재처럼 민간 자선단체가 빈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합니다.
- ③ ㉡: 국가에서 빈민 구호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 복지의 책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 ④ ㉡: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빈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빈민들이 겪는 생존의 위험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 ⑤ ㉡: 복지 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여 특정인이나 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후의 반응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글을 읽고 보니, 사회 정책적 차원의 두 복지 모델은 ( A )에 따라, 운영 방식 차원의 두 복지 제도는 ( B )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A)

(B)

- |             |         |
|-------------|---------|
| ① 정부의 정책 방향 | 수혜자의 계층 |
| ② 정부의 개입 정도 | 수혜자의 범위 |
| ③ 정부의 지원 여부 | 수혜자의 지위 |
| ④ 정부의 운영 체제 | 수혜자의 능력 |
| ⑤ 정부의 재정 상황 | 수혜자의 소득 |

2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자라는 것을 보태거나 채워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
- ②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③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④ ㉡: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
- ⑤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미경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분해능’은 관찰이 가능한 두 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분해능이 작을수록 현미경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분해능은 검사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된 광원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아진다. 광학 현미경에 사용되는 광원인 가시광선은 380~780nm의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가까운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을 이용하더라도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학 현미경은 집광렌즈, 대물렌즈, 접안렌즈를 통해 검사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집광렌즈는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검사 대상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검사 대상의 중간 상을 만든다. 그리고 대물렌즈와 접안렌즈가 중간 상을 굴절시켜 연구자가 검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한다.

의학과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세균이나 세포를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더 향상된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전자 현미경이다.

전자 현미경은 높은 수준의 분해능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선을 사용한다. 전자선은 가시광선과 같이 굴절과 집중이 용이하면서도 파장은 훨씬 짧아 광학 현미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분해능을 보여 준다. 전자 현미경 중 검사 대상을 3차원의 입체적인 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주요 부품으로는 전자총, 전자기 집광렌즈, 주사 코일, 전자기 대물렌즈, 전자 검출기, 모니터나 필름 등이 있다.

전자총은 전자를 가속하여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총의 전압이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가 방출된다. 방출된 전자는 전자기 렌즈\*의 일종인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를 통해 굴절되고, 굴절된 전자들이 집중되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전자선을 형성한다. 이때 ㉠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 대상에 집중되는 전자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에 의해 형성된 전자선은 주사 코일을 통과하게 된다. 주사 코일은 전자기장을 활용하여 전자선의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전자선이 검사 대상의 표면 전체에 순차적으로 주사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주사 코일을 통과한 전자선은 전자기 대물렌즈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전자기 대물렌즈가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집중시키는 정도에 따라 검사 대상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면적이 결정되는데, 그 면적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작아져 더 정밀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전자기 대물렌즈를 통해 주사된 전자선이 검사 대상의 표면에 부딪치면, 그 충격에 의해 검사 대상의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전자를 2차 전자라 한다. 전자 검출기는 2차 전자를 검출한 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나 필름에 검사 대상의 입체적인 상을 만들어 낸다. 이때 검출된 2차 전자의 양이 많을수록 모니터나 필름에 나타나는 상은 더욱 선명해진다.

[A]

\* 전자기 렌즈 : 자기장을 이용하여 방출된 전자를 집중시키거나 전자선을 굴절시키는 기능을 하는 원통의 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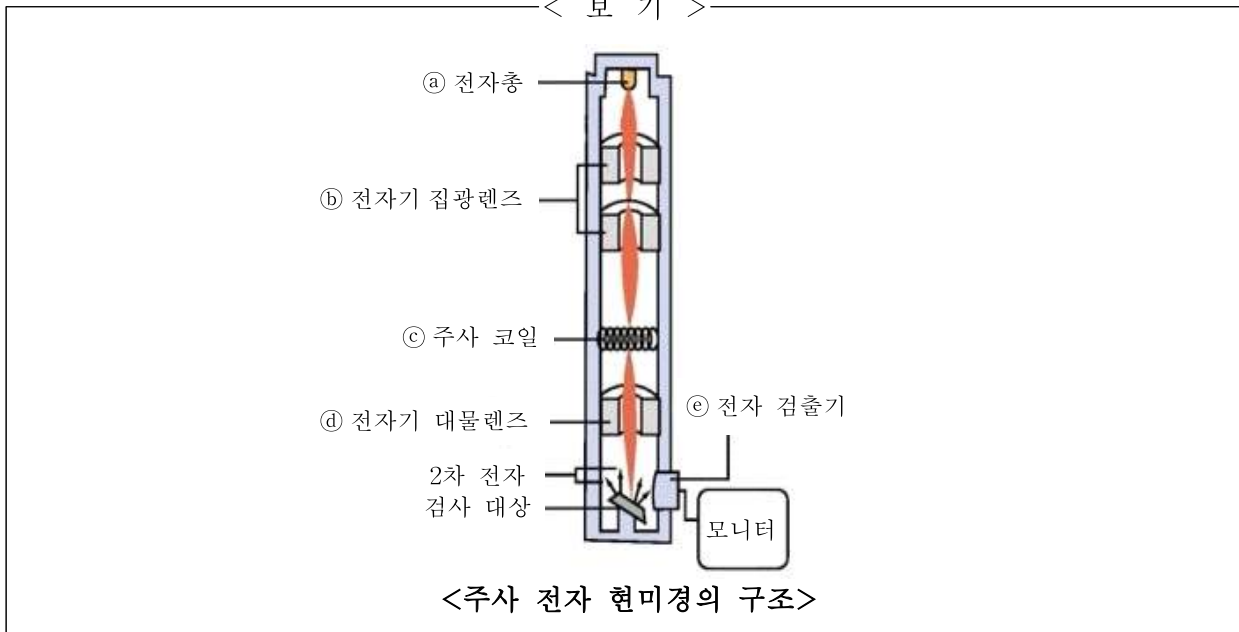
2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학 현미경은 집광렌즈를 통해 중간 상을 확대한다.
- ②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이 굴절되는 원리를 활용한다.
- ③ 광학 현미경은 주사 전자 현미경과 달리 접안렌즈를 사용한다.
- ④ 주사 전자 현미경에서는 2차 전자를 육안으로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 ⑤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검사 대상의 입체적인 상을 얻을 수 있다.

25. ‘분해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분해능이 작을수록 더욱 정밀하게 검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음. .... ①
-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에 영향을 받음. .... ②
- 전자 현미경은 사용하는 렌즈의 수가 많을수록 분해능이 커짐. .... ③
- 전자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작은 것은 전자선을 사용하기 때문임. ④
- 검사 대상의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면적이 작을수록 주사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도

26. [A]를 참고하여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짧은 파장의 전자를 방출하려면 전압이 높아야 한다.
- ② ㉡: 방출된 전자를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전자선으로 만든다.
- ③ ㉢: 검사 대상의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방향을 제어한다.
- ④ ㉣: 자기장을 이용하여 검사 대상의 표면에 전자선을 집중시킨다.
- ⑤ ㉤: 검사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선을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27.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것이군.
- ②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군.
- ③ 광학 현미경보다 더 작은 대상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군.
- ④ 검사 대상의 표면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기 위한 것이군.
- ⑤ 검사 대상의 표면에 전자선을 정확하게 주사하기 위한 것이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는 청각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공연 예술이면서 시각적 요소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판소리의 주요 시각적 요소는 창자의 신체와 창자가 입는 의상, 그리고 소도구로 사용하는 부채가 전부이다. 판소리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전략의 요체는 역설적이게도 시각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하는 것을 제약하는 공연 예술의 관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판소리 창자의 의상과 소도구가 복잡하게 짜여 있다면 창자는 오히려 시각적 요소들의 제약으로 인해 작중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변신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 특유의 연행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창자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완전히 무대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청관중’이 그 등장인물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특징만을 드러내는데, 이를 판소리에서는 ㉠ ‘부분적 현전’이라고 한다. 한편 청관중은 창자의 부분적 현전을 매개로 하여 그 등장인물의 완전한 모습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환기하게 되는데, 이를 ㉡ ‘매개적 현전’이라 한다. 또한 판소리에서는 한 사람의 창자가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하나씩 구연해 나가게 되는데, 이를 ㉢ ‘통합적 현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판소리에서 창자와 고수, 청관중은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게 될까? 판소리의 공연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처럼 판소리 공연은 동시적 결합 단위 ㉠과 ㉡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며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공소’를 활용하게 된다. 고수는 추임새로 공소를 메우면서 청관중의 추임새를 유도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동시적 결합 단위 ㉠에서 창자는 ‘창’을 하는 사이사이에 고수와 청관중이 공연 내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에 따라 고수와 청관중이 추임새를 통해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작중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동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반면 ㉡에서는 창자가 ‘아니리’를 하면서 공소를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청관중은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개입시키기 어려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중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이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판소리 공연은 공연자인 창자가 고수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연 내부에 필요한 공소를 적절하게 만들고, 청관중이 그 공소를 추임새로써 적절히 채워 나가면서 완성된다. 공소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을 통해 진행되는 판소리 공연은 ‘동화-이화’의 반복을 통해 판소리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소리판을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판소리가 생동적인 시간적 구조, 곧 과정적 생성 구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공소: 공연 예술에서 공연자가 청관중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품 내부에 시간적으로 휴지를 두거나 부분적으로 공간을 비워 두는 부분.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창> - ㉠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마오 마오, 그리 마오. (고수: 얼씨구) 서울 양반 독협디다. 기처 불식이란 말이 (고수: 허이) 사기에난 있지마는, 내 게조차 이러시오? (고수: 어이 좋다) 어제 저녁 모시었을 제, 날 보고만 말씀허었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고수: 얼씨구) 지나간 밤 (고수: 허이) 오날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어 있기가 뜻밖이오. (청관중: 잘한다)

<아니리> - ㉡

그 때야 춘향 모난 어사또가 사원 줄은 알았으나, 간밤에 사위를 너무 괘시헌 가남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가고 삼문 밖에서 눈치만 보다,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지 인자 되얏다 허고 떠들고 들오난디, (고수: 얼씨구)

<창> - ㉢

어디 가야 여기 있다. 도사령아, 큰문 잡아라. (고수: 허이) 어사 장모님 행차허신다. 열녀 춘향을 누가 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장비야, 배 다칠라! 열녀 춘향 난 배로다. (고수: 얼씨구) 네 이놈들, 오늘도 삼문만이 이미 드셀 테냐. (청관중: 잘한다)

- 판소리, 「춘향가」 중 -

- ① ㉠은 ㉡에 비해 청관중이 작중 상황에 쉽게 몰입될 여지가 있겠군.
- ② ㉡은 ㉢에 비해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겠군.
- ③ ㉡은 ㉠, ㉢에 비해 시각적 요소로서 의상과 소도구가 더 다양하겠군.
- ④ ㉠~㉢의 과정을 통해 창자와 청관중이 소통하며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겠군.
- ⑤ ㉠, ㉡, ㉢은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연행되겠군.

29. 윗글의 ‘판소리(A)’와 <보기>의 ‘풍물굿(B)’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풍물굿’은 팽과리, 징, 북과 같은 풍물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물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공연 예술이다. 풍물굿에는 특정한 등장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쓰고 공연에 참여하는 ‘잡색’이 있다. 잡색은 다른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를 오가면서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관중의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 공연을 보던 청관중은 잡색의 유도로 신명을 느끼며 공연관 안으로 들어가 춤을 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연자화된다. 이처럼 풍물굿은 공연자와 청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연행 방식을 보여 준다.

- ① (A)에서는 창자가, (B)에서는 잡색이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하며 연기하는군.
- ② (A)에서는 시간적 공소가, (B)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며 연행되겠군.
- ③ (A)와 (B)에서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공연하는군.
- ④ (A)와 (B)에서는 청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A)와 (B)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가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군.

3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청관중이, ㉡은 창자가 주체가 된다.
- ② ㉠은 ㉡과 달리 청관중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③ ㉡은 ㉠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⑤ ㉣은 ㉠과 ㉡의 구현 순서가 역전되면서 진행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A]

-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

(나)

동백의 숲까지 나는 간다

저 붉은 것,

피를 토하며 매달리는 간절한 고통 같은 것

어떤 격렬한 열망이 이 겨울 꽃을 피우게 하는지

㉠ 내 욕망의 그늘에도 동백이 숨어 피고 지고 있겠지

㉡ 지는 것들이 길 위에 누워 꽃길을 만드는구나

동백의 숲에서는 꽃의 무상함도 일별해야 했으나

견딜 수 없는 몸의 무게로 무너져내린 동백을 보는 일이란

곤두박질한 주검의 속살을 기웃거리는 일 같아서

㉢ 두 눈은 동백 너머 푸른 바다 더듬이를 곤두세운다

옛날은 이렇게도 끈질기구나

동백을 보러갔던 건

거기 내 안의 동백을 부리고자 했던 것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오네

부리지 못한 동백꽃송이 내 진창의 바닥에 떨어지네

㉤ 무수한 칼날을 들어 동백의 가치를 치고 또 친들

나를 아예 죽고 죽이지 않은들

저 동백 다시 피어나지 않겠는가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오네

㉥ 부리지 못한 동백꽃송이

내 진창의 바닥에 피어나네

[B]

- 박남준, 「동백」 -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담담한 자기 고백이 드러나 있다.
- ② 외부 정경을 관찰하면서 떠올린 지난 삶의 궤적이 나타나 있다.
- ③ 삶의 덧없음을 이겨 내고자 하는 성숙한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④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아의 근원적 모습을 탐색하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는 반복과 변주를 활용하여 내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도치를 통해 상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발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문의 마을에 가서」는 작가가 망자(亡者)의 무덤을 산에 쓰고 난 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와 느낀 삶과 죽음의 ‘상거(相距)’와 ‘합일(合一)’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상거’는 삶과 죽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을, ‘합일’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 시를 감상할 때는 각각의 시적 표현들이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분해 보면 감상의 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에서 ‘상거’, ‘합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을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발표해 봅시다.

- ①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는 삶과 구별되는 죽음의 이미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뺏는구나.’는 ‘길’을 매개로 삶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는 망자의 무덤이 있는 산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눈’이 하나로 덮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을.’은 삶과 죽음이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는 삶과 죽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리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 <보기>는 (나)에 대한 시평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인은 ‘동백’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생의 욕망을 내려놓고 싶어 동백의 숲을 찾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것은 동백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그 모양새와 붉은 색을 그대로 유지하듯, 아무리 치열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적 의지를 다진다 하더라도 생의 욕망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기 소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간은 생의 욕망에 얼마일 수밖에 없기에, 떨어진 동백을 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에, 시인은 꽃길을 만든 동백에 주던 시선을 거두었던 것이다.

- ① ㉠: 생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동백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 진 후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며 꽃길을 만드는 동백을 통해 끈질긴 생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생에 대한 욕망이 외부 세계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생의 욕망을 제거하려는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 완전한 자기 소멸에 이르지 못하기에 생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실패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푹푹탁탁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簾] 밖에는 서리 내려 밤 벌레만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임 그리는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비어 있네.  
 먼 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 놓았는데  
 역사\*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 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

[A]

[B]

[C]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

\* 역사: 편지를 전하는 사람.

(나)

산천은 험준하고 수림(樹林)은 총잡\*흔디 만학(萬壑)의 눈 사이고 천봉(千峰)의 바람 칠 제 시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화전의 죽은 군사 원혼(冤魂)이 한조(恨鳥)되야 조조만 원망하여 우니난디 이게 모도 귀성(鬼聲)이  
 라 도탄 중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히런고  
 공산 ㉡ 낙월(落月) 곱흔 밤 귀촉도 불여귀의 우는 겨 두견 너 홀노 울지 말고 날과 함기\*

- 임중환의 사설시조 -

\* 총잡: 뽕뽕하게 우거짐.

\* 함기: 함께.

(다)

가로등이 좋아지는 것은 역시 겨울철이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밤에 설레는 눈발 속에 우러러보는 등불,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닿을 수 있는 동경의 알맞는 위치에 외롭게 켜 있는 꿈의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진  
 가로등 기둥에 호젓이 기대어 서서 가없는 명상에 잠시 잠겨 보는 고독, 그것은 나의 젊은 날의 눈물겨운  
 모습이다.

그러나 요즘은 눈 오는 밤 가로등에 기대 보는 그런 고독한 낭만조차 잊은 지 오래다. 그것은 나의 연령의  
 탓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인간이란 나이가 들수록 한결 고독한 것이며, 그래서 눈이 오는 밤은 한결  
 유감해지는 것이리라. 다만 내가 고독한 낭만을 못 가지는 것은 세태의 탓일 것이다. 해방 후로 우리는

밤의 낭만을 잃은 것이다. 그 포근한 밤의 지향 없는 소요를 통행 금지라는 법이 막고 있는 것이다. 열한 시 사이렌이 불고 나면, 이미 밤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청 앞길의 가로등은 다만 텅 빈 적적한 광장을 외롭게 비치는 고독한 등불이 되는 것이다. 통행 금지 시간 넘어 거리에 선 가로등의 그 처참한 모습과 쓸쓸한 불빛. 그렇다. 우리의 생활에는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밤을 완전히 어둠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안데르센 동화에 ‘늙은 가로등’이란 작품이 있다. 밤이면 가로등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마가 넓은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작품이다. 가로등은 그 꿈 많은 청년의 허연 이마에 그의 불빛의 쓸쓸한 키스와 또한 ‘쓸쓸한 축복’을 부어 주었다. 나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 젊은 청년의 이마에 비쳐주는 가로등의 쓸쓸한 불빛이 불빛이기보다 오히려 ‘신의 너그러운 축복’이요, ‘내 삶이 내게 비쳐 주는 빛’ 같았다.

나는 나의 멀고 아득한 **인생 여로**의 대목마다 외로운 가로등이 켜 있기를 빌었다. 참으로 가로등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은은히 비치는 별빛이다. 나는 가로등을 목표로 해서 어두운 길을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 가로등 가까이 가면 한결 길이 환해지고, 때로는 내가 목표한 가로등에 별레처럼 설레는 함박눈이 이상하게 노래하는 꽃송이가 한 꼬투리처럼 걸리기도 하고, 또는 가는 실비가 비단 베일을 씌우며 신비롭게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다만 어둠 속에 등불만 종긋이 켜 있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한 가로등을 지나면, 우선 나의 그림자가 발에 밟힌다. 그 그림자가 밟히는 사실을 나는 무어라 표현할까? 눈물겨운 추억의 한 자락이 발에 밟히는 것이라 할까? 나는 이 어둡고 고독한 밤길에 다만 가로등이 비쳐주는 다만 그만큼의 ‘빛의 둘레’ 속에 나의 그림자와 더불어 호젓이 길을 걷는 한갓 영상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 자신 바로 그것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든다. 그 흐뭇한 고독감,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서러움의 물길’이다. 이 물길 위에 배를 띄우듯 어쭙잖은 몇 편의 시, 그것이 나의 숨쉬는 시의 세계일 것이다.

가로등의 이러한 빛의 둘레를 완전히 벗어날 때, 나는 앞이 아득한 암흑의 벽을 다시 느끼며, 끝없이 아득한 어두운 길에 또 하나의 가로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가로등이 없을 경우, 아득한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다.

나의 일생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지나온 길 위에 그것은 나란히 열을 지어서 스크린의 어느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뻗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설사 아무리 절망하더라도, 늘 가로등이 대목마다 켜 있는 길일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 신을 잃지 않는 한, 혹은 시를 놓치지 않는 한. 그래서 나는 때때로 창백한 이마에 가로등의 그 쓸쓸한 불빛의 키스와 축복을 받으며, 외롭게 흐뭇한 밤길을 갈 것이다. 가로등에 축복이 있기를.

- 박목월, 「가로등」 -

### 3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고사를 활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감각을 전이시켜 작중 상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글쓴이의 정서와 연계되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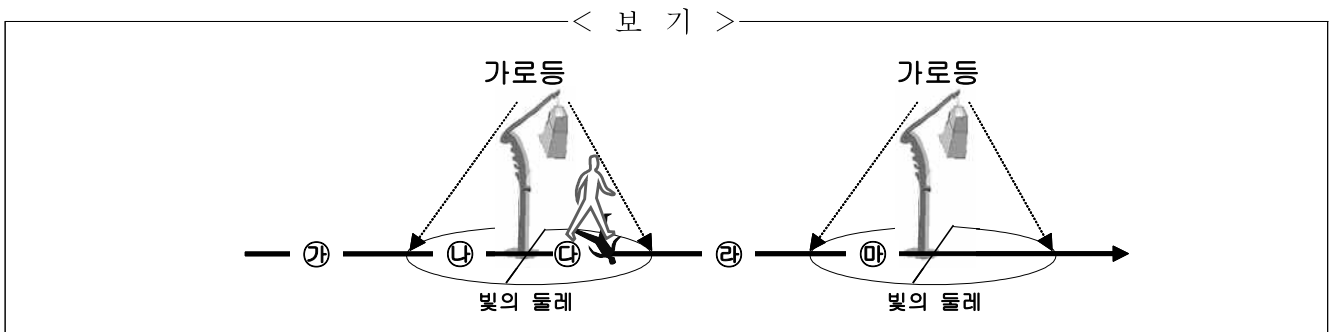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투영된 소재이다.
- ② ㉠과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은 화자와 교감하는 자연물이고, ㉡은 화자와 동일시된 자연물이다.
- ④ ㉠은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원망을 표출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애상감을 더해 주는 존재이다.

37. (가)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외부의 정경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와 [C]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C]는 ‘방 안’ → ‘뜨락’ → ‘방 안’으로의 공간 이동을 보이고 있다.
- ⑤ [A]~[C]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8. (다)의 글쓴이의 **인생 여로**를 <보기>의 ㉠~㉣에 따라 정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글쓴이가 기대감을 갖고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대목이다.
- ② ㉡: 지향하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며 희열을 느끼는 대목이다.
- ③ ㉢: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흐뭇한 고독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 ④ ㉣: 아득한 상황일지라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대목이다.
- ⑤ ㉣: 종교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대목이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중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헛, 매트 애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험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 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 [A]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향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다다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뺨 앞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꼭 다문 입은 헤일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났다. 다시 났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고서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 — 다행히 몸피가 여원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B]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 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다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넨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싫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환, 「제3병동」 -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 40. &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lt; 보 기 &g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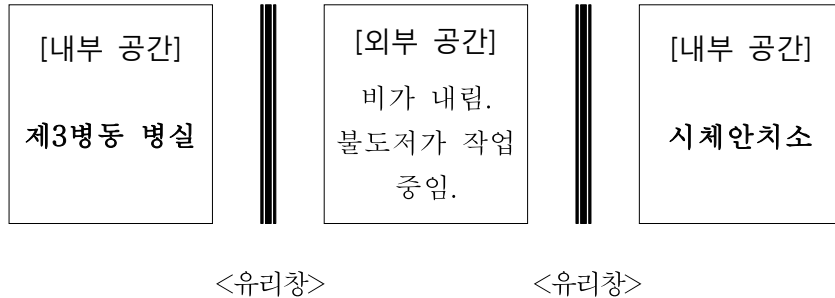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 ② 어머니를 여윈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중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41.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보기 1 >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 < 보기 2 > —

- 가희 : [A]의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희 : [B]의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희 :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희 :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① 가희, 나희      ② 가희, 다희      ③ 나희, 다희      ④ 나희, 라희      ⑤ 다희, 라희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권 승상의 아들 용선은 순무어사로 지방 순시 중 강정에 있는 숙부 권 시랑의 집에 들른다. 거기서 용선은, 부모인 오 공 부부가 돌아가셔서 고모 오 부인과 살고 있는 오 소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정혼한다. 그러나 용선은 태후의 눈에 들어 공주와 강제로 혼인하게 될 처지에 놓인다. 용선은 어머니 김 부인, 형제들과 함께 권 시랑의 아들 봉선이 한림의 벼슬을 받은 일을 축하하러 숙부의 집에 왔다가 숙부께 오 소저와의 혼례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용선이 꿇어 고하여 왈,

“숙부의 말씀이 당연하시나 소질(小姪)은 승천 입지\*하와도 오 소저와의 성례 전은 공주를 맞이하지 아니하려나이다. 숙부는 밝혀 살피옵소서.”

시랑이 침음양구\*에 탄식 왈,

“㉠ 용선의 일념에 맺힌 마음은 돌이키기 어렵도다.”

하고, 부인과 제인(諸人)을 대하여 왈,

“용선의 마음이 이러하여 시방 돌아가 상명\*을 준수하여 공주를 맞이한다 하나 끝내 화합치 못할 것이요, 오 소저의 일생이 잔잉\*할 뿐더러 몽중에 오 공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용선과 성례함을 어기지  
[A] 말라 하옵이 진실하고, 또 용선의 기상이 길고 긴 복록을 누릴지라, 비록 기군(欺君)\*함이 되나 길일을 기다려 강정에서 남모르게 성례하여 용선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아가 공주를 맞으면 좋으리라. 용선을 경계하여 상명을 준수한 후 날을 기다려 성례케 하라.”

하니, 용선은 삼가 명을 받들고 김 부인과 용선의 형제는 기꺼하나 오 부인은 즐겨 아니하고 실망하여 탄식 왈,

“사정(私情)에 얽매어 신하가 되어 임금을 기만한 죄를 범하여 이같이 하니 어찌 마침내 평안하리오.” 하더라. 용선이 시랑 부부께 하직하고 김 부인을 모셔 본택으로 돌아가니라.

이러구러 염육일이 다다르매 용선이 강정으로 나아갈새, 종을 데리고 필마로 강정에 이르러 다만 권 시랑의 외당에서 길복을 갖추고 설매당에서 혼례의 절을 올릴새, 다만 시랑 부자와 부인 모녀 앉아 있어 오 부인이 소저를 보견대 홍월 나삼과 축라 취운상을 입고 구룡채 봉관을 쓰고 혼례식에 나와 혼례를 파한 후 침소에 돌아가매, 시랑과 부인이 용선으로 더불어 난간에 좌를 명한 후 다만 오 부인이 약간 주효를 마련하고 심정을 위로할새, 오 부인이 탄식하고 슬피 울며 왈,

“질녀의 팔자가 기구하여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잃고 우리를 따라 이곳에 와서 사위를 얻으매, 혼사를 완전히 차리고 빈객을 모아 남과 같이 성례하여 이웃과 친척이 다 혼인한 줄 알게 하여 망형의 고혼을 위로할까 바랐더니, 이렇듯 뜻 아닌 환란을 만나 구차히 겨우 성례하며, 십이 세 유치 약질로 하여금  
[B]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 아내로서 남편의 보살핌을 믿지 못할 듯하니 어찌 잔잉치 않으며, 사정 있는 사람이 어찌 차마 볼 바이리오. 제 몸이나 무사하여 내 곁이나 떠나지 아니하게 용선은 오늘로부터 종적을 그침을 바라노라.”

용선이 깨달아 절하며 왈,

“숙모님의 하교를 듣사오니 소질의 심사가 근심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리로소이다.”

공이 탄식 왈,

“부질없는 설화를 하여 사람의 심사만 상하울 것이니, 다시 무익한 말은 말지어다. 서로 심곡과 회포를 모름이 없으나 다시 말을 베풀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탄식하고 일어서니 오 부인과 오 소저는 중당으로 들어가고 용선은 봉선으로 더불어 공을 모셔 중헌으로 나왔더니, 봉선이 가로되,

“명일은 입직 차례라. 소제가 마땅히 석양에 궁궐로 들어가려 하오니 형장도 한가지로 가고자 하시나이까?”

용선이 깊이 생각하다가 일어나며 왈,

“오늘로 이별이 될 것이니 소저를 잠깐 보아 이별을 고하고 너와 한가지로 들어가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용선은 궁에 들어가 공주와 혼인하나 오 소저를 잊지 못해 공주를 멀리한다. 공주는 보모를 시켜 용선의 뒤를 조사해 용선이 오 소저와 이미 혼례를 올렸음을 알고 분노한다. 공주는 태후께 말해 용선을 옥에 가두고 오 소저를 궁으로 불러들인다.

오 소저 태후 궁에 들어가니 태후와 공주 한 번 보매 과연 귀비의 색으로도 비하지 못할러라. 마음에 기어히 여겨 왈,

“저렇거든 권가 도적놈이 아니 혹하리오.”

마음에 투기와 불호(不好)한 마음이 분출하여 무수히 꾸짖되, 오 소저가 안색이 지악하여 답언이 없더라. 삼천 비빈과 육궁 분대(粉黛)는 다 애련히 여기고 또한 기특히 여겨 가로되,

“벽벽이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니, 공주가 조금도 다름없이 여기더라.

석 귀비는 용선의 외사촌 누이라. 오 소저가 궁중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귀비 반드시 저의 재용을 사랑하여 상께 고하면 상이 반드시 채취시킬까 마음에 거리끼되, 다른 계교 없어 근심하여 다음을 보아 오 소저를 참살할 것으로 생각하더라. 이때 석 귀비 오 소저의 환란 당함을 가련히 여기나, 태후와 공주가 기꺼 아니할 줄 알고 아직 모르는 체하나 심중에 잔인히 여기고 아낌을 마지아니하더라.

차시에 각처 제후가 홀연 천자께 상소하였으되,

“제왕(齊王)이 반심(叛心)을 두어 날마다 장사를 불러 모으고 군사를 조련한다 하오니 모름지기 일찍이 척지를 내리와 문죄하시교 그 기틀을 살피소서.”

하였거늘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마땅히 보낼 사람을 정하지 못하사 근심하시더니, 승상 주현이 태후께 가만히 고하여 왈,

“그 시각이 마땅히 계교를 행할 때오니 용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사신을 삼아 보내시고, 그 사이에 오 소저를 노국으로 보내어 세자의 후궁으로 삼으시면 공주에게 화가 없삽고, 노국 세자는 절색을 얻고 기꺼 하오리니 어찌 계교 기특치 아니하오리까.”

공주가 곁에 모셨다가 크게 대희하여 가로되,

“이 계교가 실로 묘하오니 급히 행하소서.”

주현이 명일에 상께 주 왈,

“이제 제국에 사신을 보내시려 하시면 문무겸전한 사람을 보내셔야 조정을 욕되지 아니하옵고 후환이 없을까 하오니, 엿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나이까.”

상이 가라사대,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경은 한 사람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현이 다시 주 왈,

“죄인 권용선을 죄를 사하여 사신으로 보내시면 이 사람밖에는 명을 받들 이 없사오니이다.”

상이 본디 용선을 중히 여기시는지라. 정히 용선이 광서를 평정하던 지략을 생각하자 즉시 용선의 죄를 사하시고 상서의 품계를 내려 제국의 사신을 정하시고, 또 용선의 두 형에게 참정과 태부를 하사하니, 기실 흥계 어느 곳에 미칠 줄 알지 못할러라.

- 작자 미상, 「권용선전」 -

\* 승천 입지: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취를 감춤을 이르는 말.

\* 침음양구: 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

\* 상명: 임금의 명령.

\* 잔잉: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려움.

\* 기균: 임금을 속이는 일.

42. 윗글을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선은 궁중에 석 귀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위안을 얻었다.
- ② 용선과 오 소저는 강정에 있는 권 시랑의 집에서 혼례를 올렸다.
- ③ 용선은 오 소저와 이별한 후 봉선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고자 했다.
- ④ 석 귀비는 자신이 오 소저를 걱정하고 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 ⑤ 태후는 주현이 용선을 제국의 사신으로 천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권용선전」은 ‘늑혼(강제 결혼)담’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늑혼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보인다.

이상적인 두 인물이 서로 사랑하여 정혼을 약속함.	...	광서를 평정할 정도로 지략이 있는 용선이 귀비의 색으로도 비하지 못할 용모를 지닌 오 소저를 만나 정혼을 약속함. .... ㉠
↓		
권력자에 의해 정혼자와의 결연이 방해를 받음.	...	용선의 지모와 인물을 알아본 공주가 정혼자와 이미 결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선과의 결혼을 추진함. .... ㉡
↓		
주인공이 주체적 의지로 정혼자와 결연하려고 함.	...	용선이 승천 입지하와도 오 소저와의 성례 전에는 공주와 성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오 소저와의 혼례를 강하게 주장함. .... ㉢
↓		
정혼자와의 결연이 지연되거나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음.	...	오 소저가 공주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와 태후와 공주에게 무수히 질책을 받음. .... ㉤ 용선은 제국에 사신으로 보내지게 되고, 오 소저는 노국에 보내져 세자의 후궁이 될 처지에 놓임. .... ㉥
↓		
고난을 극복한 주인공들이 진정한 결연을 이루게 됨.	...	용선과 오 소저가 서로 헤어질 운명에 처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결연을 이루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① ㉠

② ㉡

③ ㉢

④ ㉤

⑤ ㉥

44.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꿈에 나타난 인물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자신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 ③ [A]에는 상대의 요청에 대한 생각이, [B]에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요청이 드러나 있다.
- ④ [A]와 [B]에는 인물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을 예상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요약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45. ㉠에 나타난 ‘권 시랑’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권 시랑’은 ‘오 소저’를 향한 ‘용선’의 태도가 (                      )할 것으로 판단했겠군.

-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 ⑤ 요지부동(搖之不動)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 란